역동적이고 깜찍한 엔트리 SUV… "새로운 기준 제시할 것"

현대차, '캐스퍼' 외장 공개

당당하면서 젊고 견고한 감성 담아
전면부 원형 주간주행등 개성 넘쳐
정보공개·사전예약 등 이벤트 시작
"젊은 감성 추구하는 전 세대 타깃"

현대차 엔트리 SUV 캐스퍼 외장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CASPER)'의 외장 디자인을 1일 최초로 공개했다.

캐스퍼는 실용성 및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차명 '캐스퍼'는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는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꿀 것이라는 현대차의 의지를 반영했다.

캐스퍼는 전장 3595㎜, 휠베이스 2400㎜, 전폭 1595㎜, 전고 1575㎜로 1.0 MPI가 탑재된 기본 모델과 1.0 T-GDI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터보 모델)로 구성된다.

캐스퍼 외관 디자인은 당당함과 견고함을 바탕으로 엔트리 SUV만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

전면부 디자인은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 하단에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ights)을 배치한 분리형 레이아웃과 미래지향적인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 넓은 스키드 플레이트로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볼륨감이 돋보이는 펜더(휠 아치)와 높은 지상고로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정면과 측면 1열 창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킨 검은 색상의A필러로 개방감을 부각시키고, 이음새 없이 도어 판넬과 하나로 연결된 B필러와 브릿지 타입의 루프랙을 통해 견고한 인상을 강조했다.

또 뒷문 손잡이를 윈도우 글라스 부분에 히든 타입으로 적용해 세련되면서 깔끔한 인상을 더하고, 뒷문 손잡이 상단에 웃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스퍼 전용 캐릭터 엠블럼을 장착해 차량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후면부에는 좌·우 폭을 키운 와이드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전면 그릴의 파라메트릭 패턴을 리어 램프에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전·후면부에 동일한 원형 턴 시그널 램프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담당 전무는 "캐스퍼는 개성과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깃으로 디자인된 차량으로 세대간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캐스퍼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얼리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등 캐스퍼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重, 英 밥콕과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

설계·건조 파트너십 계약 체결
향후 방산·해양 기술 등도 공유

밥콕 존 하위 그룹총괄CEO(왼쪽),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해양방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 밥콕과 손잡고 국내 최초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밥콕코리아 한국지사에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본부장, 밥콕 존 하위 그룹총괄 CEO,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경항모 기본설계 사업 수주 및 실선 건조를 위해 양사 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밥콕과 손잡고 함정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개념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함' 개발에 직접 참여한 밥콕은 최신 함정의 설계와 건조기술을 비롯해 종합 군수지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이다.

현대중공업은 밥콕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1)'에서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수상, 잠수정) 등 통합 전투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경항모 최신 모형을 공개해 큰 주목을 끌었다.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경항모는 기존 함정 대비 비행갑판 면적을 대폭 확장하고, 스키점프대를 적용해 항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항공기 운용능력과 함정의 작전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향후 방위산업 및 해양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밥콕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래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공동의 경쟁력을 높여간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은 "조선과 방산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기함으로서 우리의 영해를 수호할 최적의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두산重, 고온가스 소형모듈원전 사업 진출

美 엑스에너지와 설계용역계약 체결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두산중공업이 고온가스로 SMR 설계에 참여하며 SMR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SMR은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고자 개발된 원자로로, 최근엔 풍력이나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전원으로 널리 쓰인다.

두산중공업은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X-energy)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온가스로는 물이 아닌 헬륨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뜻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엑스 에너지 SMR 주기기의 제작 방안 연구, 시제품 제작, 설계 최적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며 설계를 지원한다.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고온가스로 SMR(모델명 Xe-100)은 총 발전용량 320MW 규모로 80MW 원자로 모듈 4기로 구성돼 있다. 테니스 공 모양의 핵연료를 사용하며 고온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

나기용 원자력BG 부사장은 "SMR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 발전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 SMR의 설계 뿐 아니라 주기기 제작에도 향후 참여할 계획이어서 기존에 추진 중인 경수로 SMR에 고온가스로 SMR이 더해져 SMR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환승객 유치로 경쟁력 제고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국인 수요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환승객 유치 확대 카드를 꺼냈다.

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국발 미주행 인천 환승노선(중국→한국→미국)에서 약 1만여 명의 수요를 유치해 코로나19 상황 이후 최대 환승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2월 중국 출발 승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이후 18개월 만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행 환승 수요에 이어 유럽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 중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도 준비 중이다.

/양성운 기자

아우디, 쿠페형 SUV 'Q5 스포트백' 출시

40 TDI 콰트로 6769만원부터

아우디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5 쿠페형 모델 'Q5 스포트백'을 국내에 출시한다. Q5 스포트백은 40 TDI 콰트로와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1일 아우디에 따르면 더 뉴 아우디 Q5 스포트백 40 TDI 콰트로는 아우디의 베스트셀링 SUV인 Q5라인업 중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SUV모델이다.

'더 뉴 아우디 Q5 스포트백 40 TDI 콰트로'는 티타늄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알루미늄 실버 버티컬 프레임, 매트 블랙 리어 디퓨저 및 언더런 프로텍션 등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에 19인치 5-더블 암 스타일 휠을 장착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더 뉴 아우디 Q5 스포트백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S라인 엠블럼 및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측면 공기 흡입구, 메트 알루미늄 실버 언더런 프로텍션, 매드 블랙 리어 디퓨저 등이 적용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20인치 5-V스포크 스타 스타일 휠을 적용해 우아함을 더했다.

Q5 스포트백 가격은 40 TDI 콰트로 6769만6000원,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 7358만6000원이다.

/양성운 기자

캠핑족에 딱… 'LG 시네빔' 신제품 출시

고화질에 휴대성 갖춰

LG전자는 1일 'LG 시네빔' 프로젝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LG전자가 한층 더 강화된 기능의 빔 프로젝터를 선보인다.

LG전자는 1일 고화질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LG 시네빔' 프로젝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최대 120인치 화면에 풀HD 해상도를 지원한다. 본체 무게가 1.7㎏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다.

LG전자는 화면 모양 왜곡을 손쉽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집에서는 물론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은 1000안시루멘 수준의 밝기를 갖췄다. 1000안시루멘은 촛불 1000개를 동시에 켰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밝기이다.

여기에 15만:1 명암비로 대상의 모양이나 색을 원거리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하는 HDR도 지원해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보여준다.

신제품은 LG전자의 webOS 5.0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유튜브·웨이브·왓챠·티빙 등을 통해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한창대 기자 cd1@